

보 도 자 료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

-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비상식적 모순이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진정으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진심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산업은행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하는 셈입니다.
 4. 산업은행이 제시한 7대 의무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증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실패했던 감시감독이 성공하려면 더 엄중해야 하는데,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산업은행이 과도하게 관여하게 되는 항공업 재편방안이 옳은 길인지도 의문입니다.
 5.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줄속입니다.

6.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가 있습니다.
7.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 8천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인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와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가 아닌지요?

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 손해(간접,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